

보도시점 2023. 4. 7.(금) 10:10 배포 2023. 4. 7.(금) 09:30

## 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초격차 지원 위해 삼성전자 방문

- 반도체 기업의 투자 노력을 입지·세제 등 전방위 범정부 지원
- 주요국의 첨단·핵심분야 산업정책 추진에 기업과 협력하여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4.7.(금) 8시 30분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개요 >

- ▶ (일시·장소) 4.7.(금) 08:30~10:1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 ▶ (참석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조정국장,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등 경제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DX 부문 CFO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추 부총리는 먼저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D램,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추 부총리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두뇌이며 반도체 산업은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생존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약 300조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하기로 한 기업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도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제·R&D 지원, 인재양성,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의 경제안보,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첨단·핵심분야의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차질없는 투자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과 함께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과 직원들이 바라보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등 반도체 관련 사안과 함께 젊은 세대가 바라는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하며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30)
		담당자	사무관	최 연 (044-215-4531)